

프랑스인, 한국불교문화에 매료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대표단 ‘문화외교 발걸음’ 순풍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한국불교대표단이 지난 9월27일부터 10월3일까지 세계문화의 중심인 프랑스 순방에 나선 가운데 프랑스인들이 사찰음식 등 한국불교문화에 매료됐다.

조계종과 주불한국문화원(원장 이종수)은 지난 9월28일부터 30일까지 한국문화원에서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 영산재 등 한국불교문화를 소개하는 ‘한국불교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불교와의 만남’ 행사는 한국불교문화를 프랑스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사찰음식전 문점 발우공양 대표 대안스님의 사찰음식 시연을 시작으로 3일 동안 동화법음회 대표 동희스님의 영산재 공연, 조윤선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한국불교’ 특강, 템플스테이 홍보, 인경 및 연꽃잡등만들기 등 체험, 선사화전 전시 등 각종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됐다.

특히 한국불교의 날 행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불교 있는 채식문화와 웰빙문화를 반영했다. 한국사찰음식은 프랑스 현지 요리전문가와 일반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한국불교 세계화의 좋은 방편임을 재확인 시켰다.

사찰전문음식점 발우공양 대표 대안스님의 ‘한국의 사찰음식’ 특강에 이은 시식을 통해 프랑스인들은 그동안 이름만 생소했던 한국

전통사찰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전 세계 65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라파에트 백화점의 토마스 식음료총지배인은 “세계적인 요리평론가 장 클로드 르베 씨의 적극적인 소개로 한국사찰음식에 대해 알게 됐다 이제야 처음으로 맛보게 됐다”면서 “한국사찰음식은

“한국사찰음식 독특 백화점 입점 추진”

기메박물관과 유물 교환전시회의 등 문화교류 행보 계속

독특하고 진실하며 정신적인 내용까지 포함한 인상적인 음식이라 생각되며 라파에트 백화점에 사찰음식전문점 입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한국사찰음식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9월28일 열린 한국불교문화의 날 리셉션 격려사에서 “문화가 외교의 주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1700년 한국불교문화, 특히 템플스테이는 이 시대의 새로운 민간외교관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한국

불교와의 만남 행사가 양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와 공감을 통해 양국이 화합하는 교류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불교대표단 50명은 한국불교 홍보와 더불어 국제적인 종교교류 및 협력 강화에도 발벗고 나섰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9월28일 프랑스 내 아시아전문박물관인 ‘기메박물관’을 찾아 올리비에 드 베흐느 관장과 환담을 통해 한국의 불교중앙박물관과 기메박물관의 유물을 상호 교환 전시하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총무원장 스님은 기메박물관 기념품관을 찾아 수많은 서적 가운데 한국불교 관련 서적이 채 5권도 안되는데다가 한국불교를 왜곡한 외국 서적을 직접 본 뒤 한국불교문화와 수행법을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책자와 불교용품 제작, 보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29일에는 유럽 최대의 범기독교 수행공동체인 폐제공동체를 방문, 알로이스 폐제공동체 원장과의 환담을 통해 세계의 젊은이와 사회를 위해 기여할 바를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총무원장 스님은 알로이스 원장 등 폐제공동체 수사의 한국 방문과 더불어 템플스테이 체험을 제안하며 상호우호와 교류증진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프랑스 파리·폐제=박인택 기



지난 9월28일 프랑스 파리 주불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불교와의 만남’ 리셉션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현지 어린이에게 인경체험을 직접 선보이고 있다.

도천·정무대종사 원적

노동禪·청정계행 사표

2일·3일 원로회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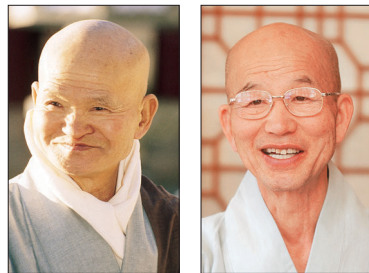
일생을 씬 없는 정진과 증생교화에 헌신하며 수행자의 표상이 됐던 조계종 원로 도천당 도천대종사(왼쪽)와 원로의원 원공당 정무대종사(오른쪽)가 원적에 들었다.

▶관련기사 9면

도천스님은 지난 9월28일 주석처인 금산 대둔산 태고사에서 임적했다. 법랍 83년, 세수 101세. 도천스님의 영결식은 2일 오전10시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에서 원로회의의장으로 임수된다. 도천스님이 임적한 다음날인 9월29일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인 정무스님이 안성 석남사에서 원적했다. 법랍 55년, 세수 81세. 빈소는 출가본사인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오는 10월3일 오전10시 용주사에서 원로회의의장으로 임수된다. <9월30일 현재>

이처럼 같은 시기에 두 어른을 잃은 불교계는 큰 슬픔에 빠진 가운데 불교계 단체들은 잇달아 애도문을 발표하고 원로 스님들의 가르침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9월29일 발표한 조사를 통해 “200만 불자들은 큰스님의 원적을 가슴 깊이 애도한다”고 전했다. 중앙신도회는 도천스님에 대해 “법상에서 보여준 계행과 가르침은 삼독심에 물들고 이기적인 중생들과 혼



탁한 사회에 교감”이라며 “묵언과 선공일치 노동선을 수행한 불자들의 사표”라고 추모했다. 이어 “선사의 계행과 수행을 사표로 육바라밀 수행에 가행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스님에 대해서는 “대종사께서 보여주신 가행정진과 언제나 검소하고 소탈하며 순수하신 모든 가르침과 청정계행을 더욱 본받아 실천할 것”이라며 “최상의 선은 효요. 최고의 악은 불효”라는 가르침을 각골 명심하고 보살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애도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30일 “도천스님과 정무스님의 원적을 애도한다”면서 “큰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청년불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9월29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인근)도 애도문을 발표하고 “정무스님은 대학생 불교 수련회를 가장 먼저 시작해 대학생들을 수행과 포교의 길로 인도했다”면서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 수행 정진하겠다”고 추모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社告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독자와 불자들의 아이디어를 지면에 반영해 신문을 쇄신하려고 합니다. 한국불교의 중흥과 불교신문의 변화를 염원하는 많은 분들의 참신한 기획안을 아래에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제 목 : 제1회 불교신문 연재물 기획안 공모
- 내 용 : 제목 + 취지 + 연재기간 + 인적사항(연락처) 등을 포함한 불교신문 연재 기획안 (최소 6개월 이상의 연재물)
- 접 수 : webmaster@ibulgyo.com
- 마 감 : 10월9일 오후5시.
- 당선작 발표 : 10월25일 불교신문 홈페이지
- 시상 내역
 - 최우수 기획상 1명 상금 50만원 + 총무원장 스님 선물(순금 핸드폰고려 1개)
 - 우수 기획상 3명 10만원권 상품권 또는 소장용 목판 <반야심경> 12만원 상당
 - 참여 기획상 10명 <부처님 생애> 1권씩 (응모자 가운데 추첨하여 10인 선정)

※채택된 기획안은 신문사 내부 논의를 거쳐 필자를 선정합니다.

불교신문 사장 수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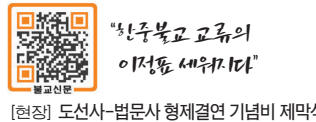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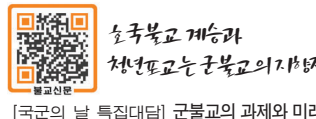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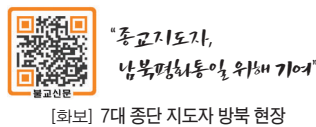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지장암이야기 8면

알림

QR코드로 만나는 불교신문 뉴스

스마트폰용 모바일 웹 서비스를 시작한 불교신문은 주요 뉴스를 QR코드로 제공합니다. 불교신문 인기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만나보세요.



與野 전통문화 인식 변화되나

내년도 템플스테이 예산 80억 원 ‘증액’ 與 이주영 정책위의장, 본지대담서 밝혀

내년도 템플스테이 국가 지원예산이 2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여당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최고위원) 이주영 의원은 지난 9월28일 본지가 개최한 기획대담에서 “한나라당이 마련한 내년도 템플스테이 예산안은 200억 원”이라며 “이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확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대폭 삭감돼 문제가 됐던 올해 예산 122억 원보다 80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주영 의장이 밝힌 200억 원은 내년 템플스테이 예산 규모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과 이명박 정부 간의 관계 정상화 이후 여야가 경쟁적으로 불교문화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불교문화 육성발전은 최근 본지가

보도한 정당 대표 릴레이 인터뷰에서 각 당의 수장들이 전적으로 동의한 내용이다. 한편 기획대담 다음날인 2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템플스테이 예산을 200억 원 규모로 책정했다고 발표해 여당의 방침에 보폭을 맞췄다. 전통문화 계승사업은 특정종교 지원사업이 아니라는 정치적 공감대 속에서, 200억 원보다 상당 조정되리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주영 의원은 템플스테이뿐만 아니라 불교를 비롯한 전통문화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나라당이 설치한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도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예산규모는 2140억 원인데, 현재 국회 예결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1600억 원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조계종의 숙원인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역시 종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과 전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동성스님의 기획대담 내용은 본지 2757호(10월8일자)에 상세하게 보도할 계획이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제1회 2011남도문화대축전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 ‘저절로 생협’이 ‘우리것, 좋은것’을 널리 알리고자 제1회 2011 남도문화 대축전을 펼칩니다.

지역별 ‘전통문화 명품전시장’ ‘친환경 특산물 직거래’ ‘예술 문화 공연’ 등 지역 최대 최고 축제의 장에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저절로생협 대표전화 : 1544-9955, 062-655-7577
후원계좌 : 농협 302-0450-1729-61 저절로생협
홈페이지 : www.ndfestival.co.kr

주최 | 새광주전남불교신도회 주관 | 저절로생협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KBC

확! 펼쳐라~

2011. 10. 28(금) ~ 10. 31(월)
광주염주종합체육관

남도전통문화·명품 박람회 10.28~10.31

친환경 특산물 직거래 장터 10.28~10.31

유네스코 지정 평화예술단 공연 10.28~10.29

10월의 선물 ‘세대공감’ 콘서트(무료) 10.30

침·뜸의 대가 구당 김남수 선생 초청 10.31

